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6 New Year | Volume 43

2016 NEW YEAR

AJU QUARTERLY MAGAZINE



이명호 이명호의 대표작인 '나무' 연작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림 같다. 사진 아니었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물론 서 있는 나무 뒤에 하얀 캔버스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이다. 커다란 캔버스는 나무를 감싼 액자가 되어 마치 자연 속에 큰 그림이 세워져 있는 듯 착시를 일으킨다.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탐구한 결과물이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자연에 대입시켰습니다. 흔하고 사소해서 평소에 눈 여겨 보지 않는 나무를 택합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캔버스를 배경으로 세우면 나무는 특별해집니다. 그러나 이 작업의 본질은 그 과정과 이면이지 피사체만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 뿐 아니라 못생긴 돌이나 평범한 이웃, 수없이 많은 개미 중의 하나여도 관찰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는 본인의 작업이 그저 예술로써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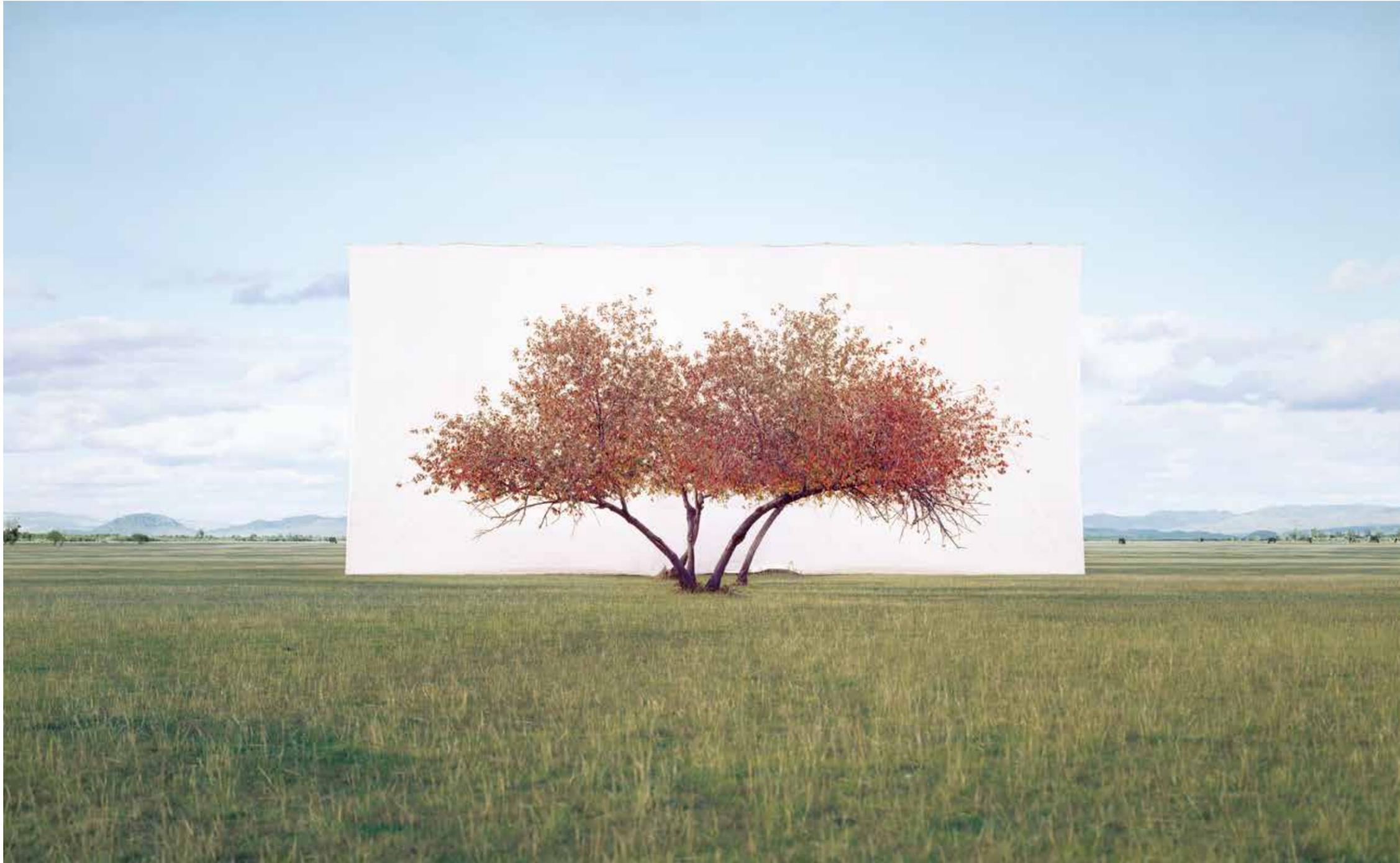


아주그림 매거진 『아주 좋은 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로드 보세요.

ISBN 978-89-98482-83-1
ISBN 978-89-98482-77-0 (세트)

Vol. 43





Tree... #2, 104x152cm, Ink on Paper, 2012, Myoung Ho Lee

나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자연에 대입시켰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 이명호의 빛나는 가치는 유럽이 먼저 알아봤다. 200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사진 미술관' 계간지인 'FOAM'이 그의 사진을 소개했고, 이를 본 뉴욕의 '요시 밀로 갤러리'가 러브콜을 보내며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에르메스 재단'을 비롯하여 미국의 '장 폴 게티 미술관', 호주의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러시아의 '푸시킨 미술관', 일본의 '키요사토 사진 미술관', 아르헨티나의 '살타 현대 미술관', 덴마크의 '왕립 도서관',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시립 미술관'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뉴욕의 '요시 밀로 갤러리', 서울의 '갤러리 현대'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표지: Tree #6, 62x52cm, Ink on Paper, 2008, Myoung Ho Lee
뒷표지: Tree #1, 155x130cm, Ink on Paper, 2006, Myoung Ho Lee

앞선 시각이 세상을 바꾼다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지만 심기일전 끝에 완성한 결심 목록이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올해도 365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쉼 수 없는 찰나의 순간들이 채워지겠지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는 아주 좋은 날이 날마다 이어지길 기도하며, 2016년 『아주 좋은 날』 신년호에서는 ‘앞선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가질 수 없지만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힘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실행하는 힘이겠지요.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한 나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 나가는 것이 조금씩 앞선 시각을 가질수 있게 만들겠지요. 신년호에서 시대를 앞서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1월 15일

아주 좋은 날

『아주 좋은 날』은 다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02 gallery	앞선 시각이 세상을 바꾼다
08 opinion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다
10 insight	세상에 대한 호기심, 방랑 DNA
14 people	인생이라는 무대 위 영원한 지젤을 꿈꾸다
18 curator's choice	세상에 없던 영화, 미지의 세계를 담다
Section 2.	Now + Moment
21 road trip	스칸디나비아의 거친 자연을 가슴에 담다, 노르웨이의 길
28 trip gourmet	노르웨이의 맛
30 motor story	실험적 재규어 XJ
32 favorite things	일상이 된 컬렉션, 여행이 된 일상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환 대표
36 scene of object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무기, 본드워치
Section 3.	Aju + Style
39 aju spirit	故 청남 문태식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44 aju sharing	제11회 사랑의 부딪들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아마릴리스
그림. 송훈

AJU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6년 1월 15일(통권 제43호) 발행처 아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안그래픽스 편집 정해욱, 이진아 디자인 박단비, 한재국 인쇄 삼성문화인쇄 등록번호 서초 바00128호

『아주 좋은 날』은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한국간행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주 좋은 날』에 실린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아주 좋은 날』의 자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연락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2016 New Year
Volume 43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36126)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다

예측 가능한 미래와

확정적 과거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우리의 선택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오늘 없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오늘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미래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이해하고 성찰해 그 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세운 계획은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헤안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과거 변화무쌍한 현실과 미래에서 헤안으로 가능과 짐작의 끈을 찾아낸 사람이다. 『제3의 물결』에서 그가 예측한 미래는 이미 ‘확정적 과거’가 되었다. 그가 예견한 미래의 중심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그중에서도 ‘인류의 탈 脫 근육 중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가 진단한 과거의 혁명은 ‘인간이 근육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벗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 진단은 미래 예측으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다. 과거의 노동과

삶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근육노동이 지배했다. 전쟁과 노동은 전적으로 남성의 근육에 의존했고, 인류의 문명사는 그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보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성향성은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우리의 사고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인간 친화성을 뜻하는 ‘휴먼웨어(Humanware)*’의 핵심은 당연히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미래의 과거인 현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시각으로 농업의

미래를 예측하다 첫 번째 물결인 농업혁명은 자연 수렵 상태에서 기약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 정착과 안정의 삶을 위한 인류의 선택이었다. 채집과 수렵은 예측이나 바람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수색하고 추적해야 한다. 그리고 찾아낸 목표물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농업이라고 근육에 의한 노동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생산은 불필요한 근육노동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근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인류가 야생의 짐승을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보의 혁명, 인류의

양성평등을 야기하다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근육노동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췄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육의 강도가 떨어지는 여성도 공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기존의 노동 유형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혁명이었다. 과학의 시대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훨씬 뛰어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의 발명을 가속했다. 20세기의 컴퓨터는 그러한 근육노동 의존도를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정보혁명을 탄생시켰다.

정보혁명은 양성평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취미를 물으면 대부분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독서,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영화 감상 등을 답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골프, 스키, 바이크, 수영 등 근육을 사용하는 것으로 취미가 바뀌었다. 이제는 오히려 인간의 신체에 근육의 필요성이 건강상 필요해진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가 가져다 준 정보혁명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휴먼웨어 마인드가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20세기 전반부는 전쟁으로 얼룩지고, 후반부는 전 세계가 산업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속도와 효율이 지배한 시

대였다. 21세기는 더 이상 근육에 의한 노동생산성을 계산하는 시대가 아니고 속도와 효율로 결정되는 시대도 아니다. 새로운 시대는 창조와 혁신 그리고 융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근육노동은 이미 기계가 대체했고 그 흐름을 정보혁명이 이어가며 가속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휴먼웨어의 시대 사람 개개인의 역량이다.

휴먼웨어는 미래의 핵심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개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다. 미래는 디지털 노마드, 언어의 장벽이나 공간의 제한성이 없는 콘텐츠의 시대이다.

* 휴먼웨어(Humanware)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일반생활인이나 직원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조직인의 마음가짐, 동기부여 정도, 의식 또는 자질을 총칭한다.

<p>앞선 시각을 갖기 위한 일상의 습관</p> <p>1. 메모를 통해 추론의 힘을 기른다</p> <p>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개념이나 용어가 의외로 많다. 또 이미 널리 쓰이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일단 메모를 해 두길 권한다. 이후 곧바로 검색하지 않고 일상 업무가 끝나는 시간쯤에 의미를 찾아본다. 메모를 한 뒤 그걸 나름대로 추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보는 게 아니라 질문해서 답을 추적하는 힘이 미래를 여는 진정한 힘이다.</p> <p>2. 하루에 하나씩 완성된 문장을 만든다</p> <p>생각은 뇌를 자극한 뒤 곧 사라지거나 형체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장이다. 문장으로 잡아내야 내 안에 들어온다. 아침에 일어나 화두 하나를 선정해 오가는 길에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통날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정돈하거나 길이를 늘린다. 사고의 호흡은 문장의 호흡에 비례한다.</p> <p>3. 책을 읽으며 해석을 미래로 확장한다</p> <p>어떤 책을 읽든 내용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재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뒤에 해석을 미래로 확장하면서 해답을 가능해 본다.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진정한 미래학의 태도다. 책을 읽을 때도 가끔 멈춰서 그다음 내용을 짐작해 본다. 내 상상과 책의 전개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p>
--

글쓴이 김경집은 인문학자이자 작가다. 충남 해미에 마련한 작업실 수연재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고장난 저울』, 『인문학은 밥이다』, 『엄마 인문학』 등이 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방랑 DNA

금원 vs 나혜석

여성이 욕망이 있다는 것조차도 숨겨야 했던 시절,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두 여성이 있다.
담장 너머 저 바깥 세상을 궁금해한 금원과 나혜석. 시대를 앞서간 이 두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서 남겼다.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던,
시대를 행군한 두 여성을 소개한다. 글. 박우환 그림. 민지홍



하늘이 내게 총명한 재주를 주셨으니
문명한 나라에서 어찌 쓸모 있게 쓰이지 않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배낭 메고 금강산을 유람한 최초의 여성 여행가 금원

금원(錦園 1817~?)은 열네 살 어린 나이에 남장을 하고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을 유람했고, 삼십 대가 되어서는 용산 삼호정에서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라는 여성들만의 시회(詩會)를 열었으며 1850년에는 그동안의 여행기를 한문으로 기록한 책 『호동서략기』를 썼다. 또한 중국의 역사와 신화, 한시를 능숙하게 인용할 정도로 한학에 정통했으며 당대 유명한 문장가들과도 교류한 실력자였다. 금원은 규방 탈출의 길을 여행에서 찾았다. 그녀의 여행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우리 조선 여자도 인제는 그만
사람같이 좀 되어 봐야만 할 것이 아니오?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오?

미국 여자는 이성(理性)과 철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불국(佛國) 여자는 과학과 예술로 여자다운 여자요,
독일 여자는 용기와 노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서야 겨우
여자다운 여자의 제일보를
밟는다 하면 이 너무 늦지 않소?

그림, 글, 시 등 다방면에 재주를 갖춘 신여성 나혜석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문인이며 한국 근대사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특별했던 여성이다. 시대적 여권 주창의 선두주자였으며 선각적 시론과 시, 소설, 생활 에세이 등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했다. 한국인 화가로는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열었으며 근대 최초의 본격적 전업 화가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1927년 남편을 따라 여행길에 올라 조선 최초로 유럽 여행을 한 여성이 되었다.



호기심과 용기, 그녀들의 삶을 움직이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 김동환 作 '산 너머 남촌에는' -

김동환 시인의 한 구절처럼 어릴 적 '대체 저 산 너머에는 누가 살까? 그곳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하는 궁금함에 산을 넘고 넘었던 기억이 난다. 호기심이 나를 움직인 것이다. 먼 옛날,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의 조상들은 세상 곳곳을 떠돌아다녔다.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커다란 동기였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들은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 과정 중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과 마주쳤고, 곳곳에 삶과 문명의 족적을 남겼다. 노마딕한 삶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내재한 인간의 천성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이 궁금했던 두 명의 여인, 금원과 나혜석

이 땅에서 나고 자랐던 200여 년 전 금원과 100여 년 전 나혜석은 호기심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들은 여자의 몸임에도 용감하게 세상에 맞서 도전했다. 금원은 여행은 고사하고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 후기 남장을 하고 금강산과 관동팔곡을 여행하고자 했다. 1830년 열네 살의 금원은 극구 반대하는 부모를

졸라 여행을 허락받았고 전국 곳곳을 여행했다. 금원의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다.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운행 이치를 알기 위함이었다. 1850년 금원은 20여 년에 걸친 자신의 여행기를 담아 『호동서략기』라는 기행문을 남겼고, 인생 후반기에는 용산 삼호정에 정착해 명문가 소실 5인의 여성으로 구성된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 시회(詩會)를 만들었다. 남성 중심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여성들로 이루어진 시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금원은 사람들의 시선과 비방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호동서략기』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었다. 여성의 존재 가치가 거의 없었던 시절, 그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호동서략기』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금원의 염원이자 절규였다.

1896년 금원과 비슷한 여성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혜석이다. 나혜석의 친취적 기상은 마치 금원이 환생한 듯하다. 금원은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의식 개조 사회 개혁이라는 곳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유교 사회의 신분적, 사회적 한계 때문이었겠지만 사회적 의식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혜석의 활동은 개인적 자유를 넘어 정신 개혁, 의식주 개혁, 사회개조로까지 나아갔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여권운동가, 사회사상가, 소설가였다. 그녀가 하면 뭐든지 우리나라 최초였다. 1927년 당시 서른한 살이었던 나혜석에게 세계 일주의 기회가 찾아왔다. 외교관이었던 남편의 오지 근무를 위로하고자 마련된



여행이었다.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들고는 실컷 세계 일주를 하자"는 남편의 말에 나혜석은 "기운 있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칼날 같은 때 떠나야지, 늙어서 내 꼴 남 구경시키려고 다니겠느냐?"고 남편을 설득했다. 1927년 6월, 꿈에 그리던 1년 반 동안의 세계 여행을 떠나며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 왔던 네 가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했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둘째, 남녀 간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게 살까? 셋째, 여자의 지위란 어떠한 것인가? 넷째,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폐쇄적이고 근대의 역사가 일천한 조선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단순히 호기심만 많은 관찰자가 아니었다. 언어가 잘 안 통함에도 외국인 가정에 자진 기숙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였음에도 나혜석은 말과 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신 및 의식주 개혁, 사회제도의 개선에 앞장섰다. 사회적 냉대, 가난, 고독 등으로 그녀의 꿈은 좌초되었지만, 그녀가 소리 높여 외친 바람직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금원과 나혜석의 삶을 움직인 힘은 호기심과 용기였다. 호기심은 의식주에 이은 인간의 네 번째 본능이라고 한다. 일반 사람들의 이 본능은 사회적 규범과 틀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지만, 앞선 세상을 내다본 듯 이 두 여성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물론 제도와 사회 안에서 그들의 실행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한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일제강점기에 모든 방면에 능통했던 신여성 나혜석으로, 신분과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선 시대에 금강산을 유람한 최초의 여성 여행가 금원으로 말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은 앞선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대에 한발 앞서 나갔던 수많은 금원과 나혜석이 있었기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앞섰던 위인들의 특별함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용기. 금원과 나혜석을 그 누구보다도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요소였다.

글쓴이 박우찬은 예술의전당에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를 비롯해 대구시립미술관건립 전담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학예연구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이란 무대 위 영원한 지젤을 꿈꾸다

문훈숙 단장



30여 년 전 발레 불모지인 한국에서 발레를 시작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 영국과 모나코에서 발레를 배우며 동양인 최초로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주역으로, 지젤 역의 무용수로 활약했다. 오로지 한길을 걸으며 열정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의 이야기다. 여전히 심포 없이 달리고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특별한 인터뷰어, 비서실의 김기원 매니저가 동행했다. 평소 현대무용에 관심이 많았던 김기원 매니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발레 분야가 더욱 알고 싶어졌다고. 문훈숙 단장의 현역 시절부터 앞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그녀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정혜옥 사진 장호

저 같은 직장인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에너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원동력이 지금의 단장님을 만든 것일까요?

저에게 발레는 운명과도 같아요. 스스로를 몰아붙여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발레였기 때문이죠. 사실 어린 시절엔 여러 번 발레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했어요. 외국에 나가 보니 신체적인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유학 시절 여러 차별을 겪으면서 동양인 무용수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또 당시에 우리나라는 발레라는 예술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적인 열악함도 있었고요. 풍족이 아닌 결핍,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는 힘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은 길고 혹독했지만요.

그렇다면 단장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다들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해요. 무용수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린 무용수들도 빨리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와인이 오랜 기간 숙성되어야 좋은 맛과 향을 품듯이 기다리며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던지고 무대, 발레에만 집중할 정도로 무모한 성실함이 있었어요. 거듭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도 부족함을 느끼니까 현역 시절에는 모든 에너지를 발레에 쏟아부었죠. 예술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죠. 예술을 통해서 내가 저명해지고,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나를 던져 놓으면 후에 평가와 명성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단장님은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고전 발레 <지젤>의 첫 동양인 무용수이자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주역으로도 활동하셨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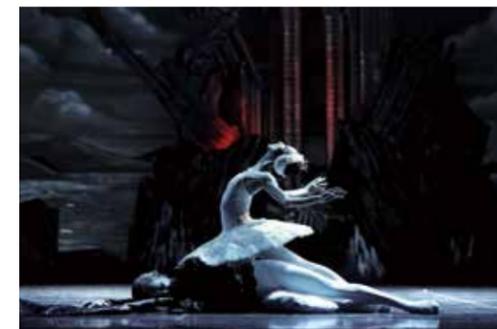
일찍 해서 그래요.(웃음) 그 당시에는 '최초'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앞서 제가 발레를 '운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눈앞에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마린스키 무대에 서겠다고거나 지젤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제 앞에 놓였고, 이왕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누군가 이미 걸었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기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은 단장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쉽지 않았죠.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도망가고 싶은 정도였죠. 마린스키 무대는 러시아 최고의, 전설의 무용수들이 서던 무대예요. 거기에 서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죠. 그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의 시작 5분 전, 커튼 뒤에선 제 심장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쿵쾅거렸어요. 막이 오르기 전의 그 떨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한참 현역으로 뛰던 시절에도 떨림이 많았는데, 과파로티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막이 오르기 전 5분은 나의 최고의 적이라도 그 순간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요. 세계적인 테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제야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최초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저에게 중요한 점은 항상 무대는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유니버설발레단이 매년 겨울에 선보이는 작품 <백조의 호수>의 한 장면



우리나라 발레 역사가 60년 정도 되는데 유럽 발레는 400년이 넘죠. 우리가 그 오랜 역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보를 좀 더 압축해서 한 스텝 더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젤 역할을 꽤 오래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젤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셨더라고요.

호주에 그램 머피라는 유명한 안무가가 있어요. 그분이 새롭게 각색한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보았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그분과 작업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성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그램 머피와 작업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신기하지만 고전발레 작품인 <지젤>을 새롭게 구성해 보자고 그램 머피가 제안한 것도 신기했어요. 저 역시 그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색다른 시도라는 평가가 많은데 기존의 <지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플롯 구성도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예요. 무대 배경은 한국의 산으로 하고, 발레임에도 불구하고 꿩과리 같은 전통 악기가 등장하죠. 걱정적인 안무와 국악기까지 도입해 '로맨틱 지젤'이 아닌 '모던 지젤'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도전을 통해 무용수도 발레단도 성장하고, 대중에게 색다른 발레를 보여 주는 것, 그것이 발레단이 가져야 할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발레단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갈 거예요.

<심청>과 <춘향> 같은 한국 창작 발레를 선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발레 역사가 60년 정도 되는데 유럽 발레는 400년이 넘죠. 우리가 그 오랜 역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보를 좀 더 압축해서 한 스텝 더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유니크한 것을 보유하려고 시도한 것이 고전 작품을 발레에 차용한 것이죠. <심청>은 2016년이 초연 30주년이예요.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립 연도와 같아요. 발레단을 창단하면서부터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었던 작품이죠. 서양의 정서를 알 수 있는 클래식한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 되레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정서와 작품에 공감을 하던가요?

그럼요. 발레는 남녀의 사랑을 주로 하지만 <심청>이나 <춘향>은 효나 가족애에 대한 정서를 보여 주잖아요. 이 부분을 해외에서도 공감하면서 특색 있게 봐주더라고요. 세계적인 발레단의 추세를 보면 모던, 클래식, 모던 창작 작품을 다 선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발레단이 보유한 레퍼토리가 그 발레단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발레단을 운영하다 보니 차곡차곡 작품이 쌓였어요. 초기에는 명작을 선보였고 2001년부터는 현대 작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엔 <지젤>을 재해석한 새로운 작품도 선보였고요. 또 다른 신작을 계속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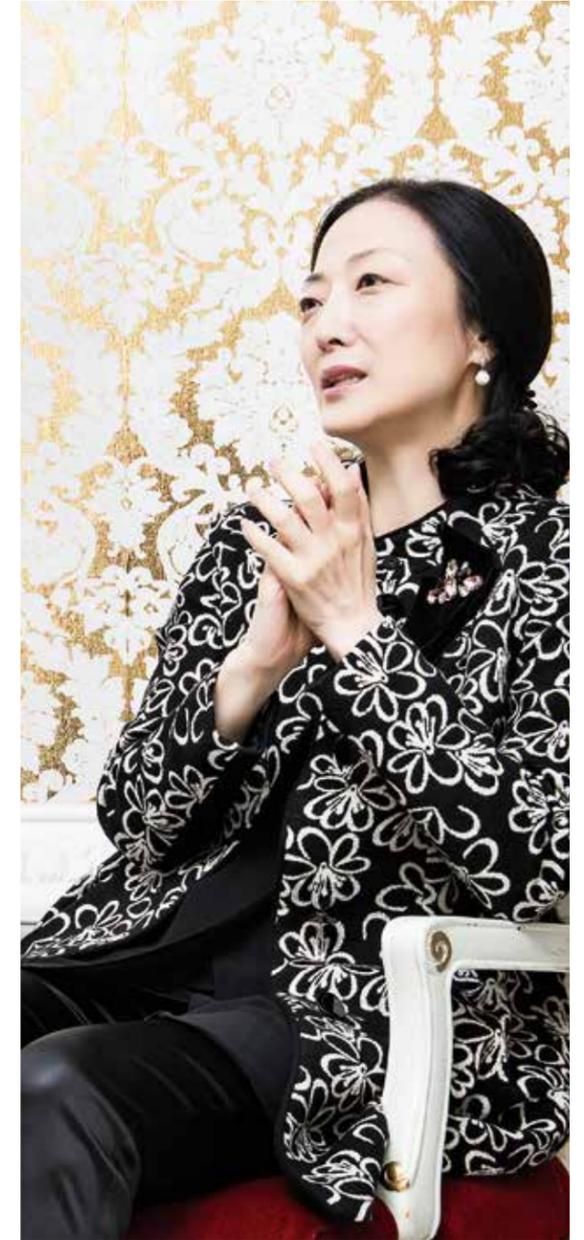
발레 <춘향>의 배경 음악이 특이하게도 차이콥스키 음악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공연을 몇 주 앞두고 리허설을 해 보는데, 뭔가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악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차이콥스키의 명곡이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곡 위주로 편곡을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발레 <춘향>에서 신의 한 수는 음악이었다고. 새로운 시도가 신선했다고 말이지요.

단장님께서 선보이는 작품, 발레단의 행보 등에서

또 다른 '최초'를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저기 위쪽, 바로 북한이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예술은 그런 힘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서로 한데 뭉쳐 하나로 만들어 주는 힘, 예술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힘 같은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병원에서는 음악과 미술로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해요. 좋은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니까요. 정치, 종교, 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 뭉치 되게 하는 일은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봐요. 좋은 발레 작품을 선보이고, 반 걸음 더 먼저 나아가 새로운 것을 선보이는 것, 그것이 유니버설발레단의 행보가 될 겁니다.



문훈숙 단장은 중학교 시절 영국과 모나코로 발레 유학을 떠났다. 타지에서 외국 무용수들과 경쟁해야 했던 그녀는 연습 노트를 만들 정도로 발레에 몰두했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실제 그녀가 작성한 발레 노트다. 수업 필기 노트, 발레 동작에 관한 노트, 발레 플롯과 장면에 대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김기원 매니저는 아주 비서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다. 현대무용을 하는 친구의 영향으로 평소 무용에 관심이 많은 그는 문훈숙 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한 이후로 발레 분야에도 견문을 넓히고자 한다는 후문.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인에게 드립니다. 인터뷰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주 좋은 날' 편집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커뮤니케이션팀 ajupr@aju.co.kr)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포스터

리얼리티에 대한 끝없는 집착, 영화를 만든다

인간이 달 착륙에 성공하기 1년 전인 1968년 뉴욕. 할리우드를 떠나 영국에서 영화를 만들던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의 신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첫 시사회가 열렸다. 그런데 광대한 우주를 바탕으로 원시 인류가 최초의 도구인 뼈다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목성으로의 여행까지를 그리는데 이 장대한 SF 영화를 보다가 241명의 관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그 중에는 “대체 이 영화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게 이야기해 줄 사람 있어요?”라고 말하며 화를 낸 당대의 스타 록 허드슨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는 지나치리만큼 단순한 스토리인 데다, 수십 분간 한 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않거나, 배경 음악조차 없이 슬로모션으로 영상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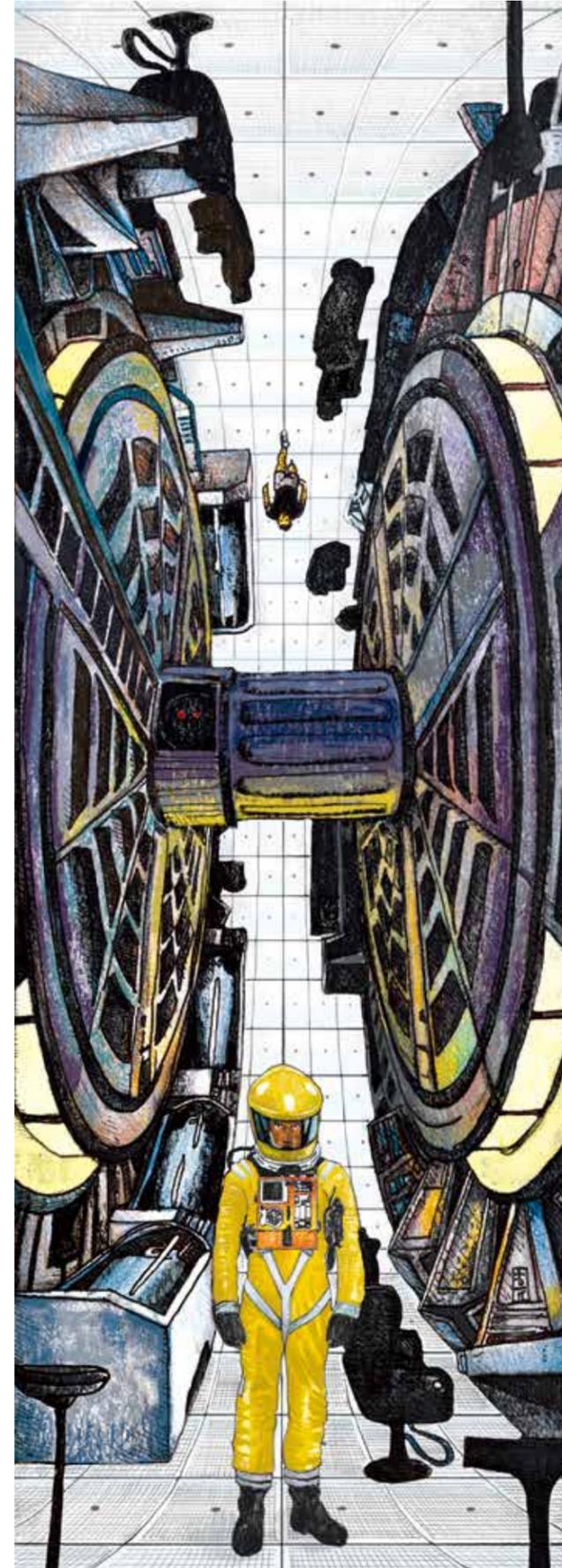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현존하는 모든 SF 영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엔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비전, 기계와 인간의 관계, 문명과 본능적 충동이 날 선 대립을 벌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통찰이 가득하다. 사실 이 영화 이전의 SF 영화들 속 우주 공간은 괴물, 괴수, 벌레가 판을 치고 비슷한 모양의 우주선이 떠다니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우

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 준 이가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었다. 우주인 ‘보우만’이 에어 로크를 통해 디스커버리호로 잠입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에어 로크의 문이 열리면 스피커에서 ‘굉음’이 터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은 반대로 이 장면에서 음향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는 광선이 보일 리도 없고 폭발음 역시 귀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SF 영화가 일률적으로 비행접시 모양의 우주선을 사용한 반면 큐브릭 감독은 NASA에서 우주선을 개발한 디자이너 프레드릭을 고용해 엄격한 과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을 디자인했다. 결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담담하고 느린 템포로 우주의 장엄함을 압도적으로 시각화했다. 특히 모노리스를 발견한 원시인이 다른 원시인과 동물을 살해한 후, 최초의 도구인 뼈다귀를 허공으로 던지자 이것이 공간을 유영하는 우주선으로 변화하는 매치 컷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집의 교본이 되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슬로모션으로 올라간 뼈다귀가 같은 모양의 우주선이 되는 이 장면을 통해 큐브릭 감독은 수백만 년의 시간이 경과 후 하나의 도구가 어떻게 우주선으로 발전하고 변모했는지 인류 문명의 발달을 단 두 컷으로 요약해 압축한 것이다.

게다가 우주선과 우주여행에 관한 이 영화에서 큐브릭 감독은 그 특유의 초정밀한 디테일로 미래의 생활상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면 우주선 한쪽 벽에 깨알같이 화장실 사용법 10가지 규칙을 적어 놓았는데, 이는 NASA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스텐디스가 우주여행을 하는 손님을 위해 안내 방송의 언어를 선택하는 장면 역시 단 몇 초만 비추고 지나가는데도 소품 하나 하나 고증을 거칠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50여 년 전의 영화, 오늘을 담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 영화가 더 놀라운 이유는 영화 속 몇 가지 설정이 이미 현재에 정확히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와의 화상 통화는 영화가 정확히 예언한 현재의 일부분이다. 영화에는 우주정거장이 일정한 원심력으로 돌아 인공 중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역시 실제로 미로 같은



우주정거장이 건설되었다. 또한 디스커버리호에 있는 완전 평면 스크린이나 영화 속 휴대용 디스플레이인 ‘뉴스패드’ 역시 40년 뒤의 평면 TV와 태블릿 컴퓨터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모습을 상당히 정확히 예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큐브릭 감독의 바람대로 영화 속 미래상과 우주의 모습은 ‘2001년에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

놀랍게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이 모든 것을 그래픽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특수 효과로 구현했다. 인간이 달에 가기도 전에 만든 이 영화가 여전히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의 물리 법칙을 따르는 사실적인 SF 영화이기 때문이다. 〈딥 임팩트〉나 〈아마겔론〉같이 미래를 다루는 수많은 SF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의 자유로움을 빌려 공간과 액션을 과장하지만, 그 어떤 SF 물도 이 영화 속의 사물이 주는 둔중하지만 진중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따라잡을 수 없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아마 22세기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인류의 진화 단계와 문명의 기원에 관해 외계인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발칙한 상상. 목성에 스타게이트가 있어서 이것을 통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리라는 믿음.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정 등 기상천외한 범우주적 상상력은 수많은 SF 영화에 영감을 주어 〈스타워즈〉와 〈인텔리전스〉, 〈AI〉가 탄생되었다. 수많은 감독, 조지 루카스(George Lucas)와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같은 SF 영화감독은 모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영감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단 영화감독만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영화에 등장한 ‘할 9000’에서 미래형 슈퍼컴퓨터의 영감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다.

당연히 2015년 〈사이언스〉지는 역대 모든 SF 영화 중 가장 과학적인 영화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꼽았다. 초정밀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모든 것을 알아 가겠다는 지식열. 이를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의 열정과 경쟁심, 상상력과 창의력.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보여 주는 영감 덩어리로, 인류의 모든 노력과 자산이 축적된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 a space odyssey

세상에 없던 영화, 미지의 세계를 담다

화성에서의 생존을 그린 영화 〈마션〉, 행성 간 이동을 소재로 한 〈인터스텔라〉, 우주에 홀로 남겨진 비행사의 사투를 담은 〈그래비티〉는 수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모든 SF 영화의 전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지금 봐도 최근 SF 영화에 뒤지지 않는 이 영화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글 심영섭 그림 민지홍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글쓴이 심영섭은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 다양한 영화를 그너만의 시각으로 평론한다. 심리학, 영화, 예술, 인문학을 영화에 접목한 영화 치료와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 등이 있다.



amateur

미국·영국 [ˈæmətə(r) ; ˌæmətʃə(r)]
아마추어: [명사] 진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Amateur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Amor 아모르'에서 나왔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에 의하면 아모르는 금화살과 납화살을 가진 어린 궁수였다. 그가 쏜 금화살에 맞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맞으면 눈앞의 사람에게서 무조건 도망치게 된다. 당시 로마인들은 세상의 모든 짝사랑과 삼각관계는 아모르가 장난삼아 쏜 화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다.

어느 날 태양신 아폴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랑의 신 아모르를 찾아가 자기보다 활을 잘 쏜다고 우쭐댔다. 화가 난 아모르는 아폴로를 금화살로 쏘고 곧바로 아폴로의 눈앞에 있는 다프네라는 선녀를 납화살로 쏘았다. 납화살에 맞은 다프네는 아폴로에게서 부리나케 도망쳤고, 금화살에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와 사랑에 빠져 미친 듯이 그녀의 뒤를 쫓았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된 다프네는 강과 대지의 여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강과 대지의 여신은 다프네를 월계수로 변신시켰는데, 아폴로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손끝에 닿는 순간 월계수로 변해 버리자 절망에 빠졌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로가 이 월계수를 평생 아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에게 다프네의 영혼이 깃든 월계수를 머리에 얹어 아폴로의 축복을 이끌어 내도록 월계관을 씌우는 전통이 생겼다고 한다.

어쨌든 Amor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고 여기서 나온 amateur는 '애인'을 뜻하는 단어였다. 그러다 나중에 미술 작품을 애인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미술이나 음악 애호가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다가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까지 확장해 쓰게 되었다.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인문서다.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에서 발췌한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Section 2.

Now +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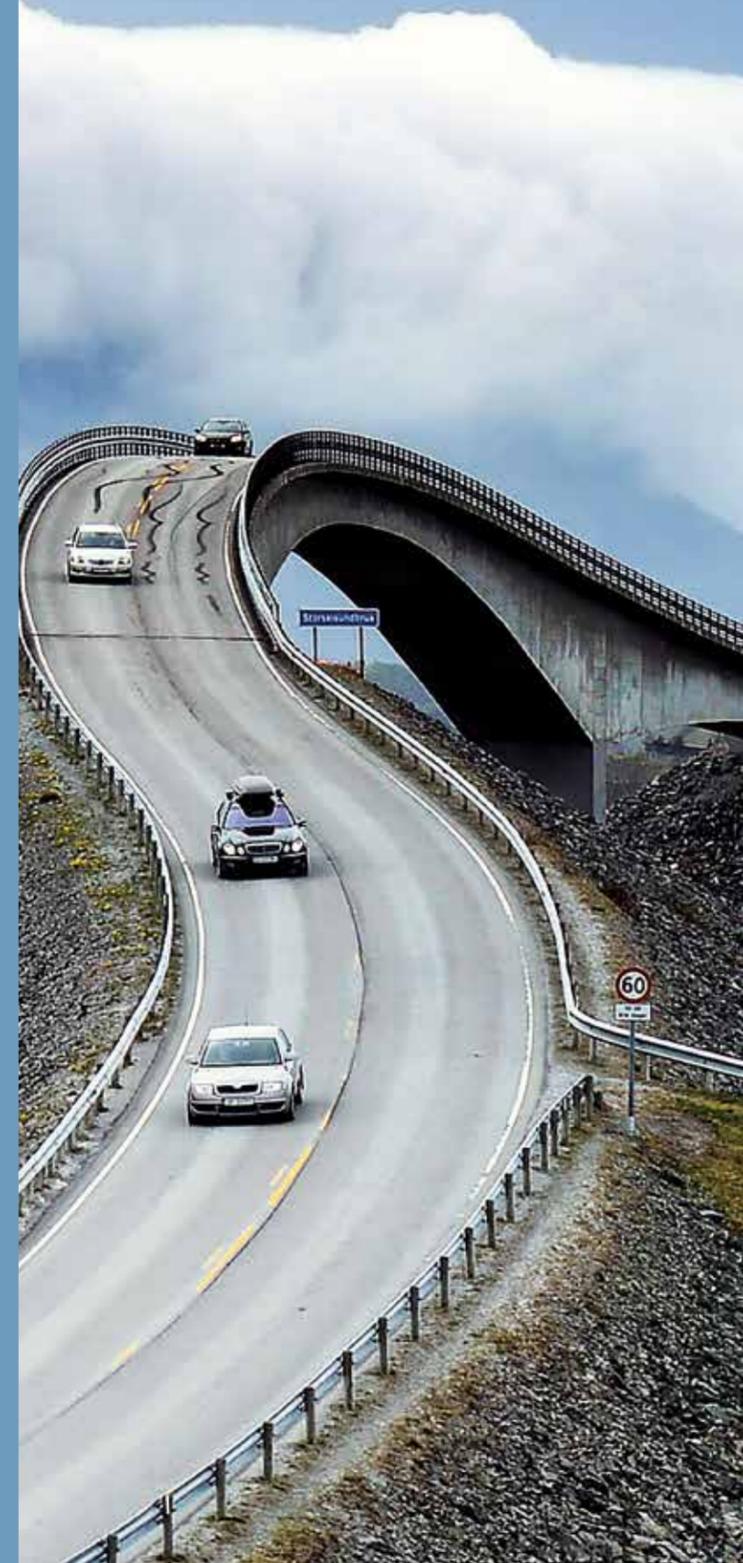
길고 긴 하이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달려 봅니다.
풍경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마음을 흔들고
있고 있던 삶의 기억이 하나둘씩 말을 걸어옵니다.
쓰라린 실패의 기억, 용기 내지 못한 일은 왜 그리 많은지요.
문득 우리네 모두가 그저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코레트(Colette)는 이야기했지요.
"진정한 여행자는 걸어서 다니는 자이며, 걸으면서도 자주 앉는다"
힘들 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책하듯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이 차츰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호 노르웨이에서 찾은 삶의 멋과 맛,
그리고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탐험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질주를 즐기는 여행을 몇 번이나 할까?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여행에서 질주는 더 짜릿하다.

글·사진 손원천(〈서울신문〉 여행전문 기자), 박영훈 일러스트 민지홍



ama

미국·영국 [ˈæm]
아마추어: [명사] 진짜

Amateur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Amor C
의하면 아마르는 금화살과 납화살을 가진 아
있는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다. 당시 로마인들은 세상의 모든 짝사랑과
생긴 것으로 보았다.

어느 날 태양신 아폴로는 자기보다 나이
가 그보다 활을 잘 쏜다고 우쭐댔다. 화가 난
로의 눈앞에 있는 다프네라는 선녀를 납화살
서 부리나케 도망쳤고, 금화살에 맞은 아폴로
를 쫓았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더 이상 도
게 도움을 청했다. 강과 대지의 여신은 다프
는 여자가 자신의 손끝에 닿는 순간 월계수로
들은 아폴로가 이 월계수를 평생 아꼈다고
돌아오는 영웅에게 다프네의 영혼이 깃든 월
내도록 월계관을 씌우는 전통이 생겼다고 한

어쨌든 Amor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
였다. 그러다 나중에 미술 작품을 애인처럼
추어라고 부르다가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까지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는 언어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에서 발

스칸디나비아의 거친 자연을 가슴에 담다 노르웨이의 길

살면서 질주를 즐기는 여행을 몇 번이나 할까?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여행에서 질주는 더 짜릿하다.

글·사진 손원천(《서울신문》여행전문 기자), 박영훈 일러스트 민지홍





‘북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의 노르웨이.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떠난다. 여행이 주는 낯선 설렘과 진한 끌림에 여행을 떠나오기 전 일들과는 길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현실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앞의 길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

그러다 문득 낯선 곳에 차를 세워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을 뉘 놓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동차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노르웨이에서 만나는
거칠은 풍경은 그만의
짜릿한 매력이 있다.
거칠지만 자연 그대로의,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심장이 풀깃해지는’
모습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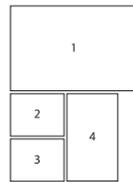
올레순의 숙소에서
바라본 맑은 연설산과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풍경

산과 물의 나라 노르웨이, 그곳으로 떠났다

바람이 차다. 빙하 위를 지나온 탓이다. 그리고 맑다. 코끝을 스칠 때마다 공기 알갱이가 부서지는 듯하다. 그 바람을 맞으며 노르웨이 중서부를 달렸다. 가보지 못한 길, 생소한 풍경들, 말지 못한 향기를 찾아 나선 여정이다. 승용차를 빌려 항구도시 크리스티안순에서 피오르를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 다시 항구도시 올레순으로 나오는 코스다. 섬과 바다, 터널과 산길을 승용차로, 또 페리로 달리고 건너는 여정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의 ‘골든 루트’였다. 하늘은 한 번도 우리 편에서 날씨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렵사리 여정을 마친 일행 모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아주 좋은 날은 이런 때 찾아오지 싶다. 고된 길을 함께 지나며 보고 듣고 담은 것을 미소 한 줄기로 공유할 수 있을 때 말이다.

출발 전에 알아둘게 있다. 노르웨이 지명은 ‘~순’이나 ‘~달’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 순(sund)은 수로물길, 달(dal)은 골짜기를 뜻한다. 둘 다 피오르 지형에서 비롯된 표현 양식이다. 따라서 두 단어로 끝나는 지역이 나온다면 필경 물가거나 협곡일 터다. 그리고 늘 달밭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눈(雪)이 그렇다. 여름 초입에도 산 위엔 눈이 한가득이다. 이 탓에 갈 수 없는 곳도 생긴다. 이번 여정의 일부 구간에서 그랬다. 원래 코스는 크리스티안순에서 애틀랜틱 로드, 장미의 도시라 불리는 몰데, 트롤스티겐을 거쳐 에이랑에르 피오르로 가는 이른바 ‘골든 루트’였다. 한데 몰데와 에이랑에르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쌓인 눈 탓에 도로가 폐쇄된 것이다. 저 유명한 트롤스티겐은 구경도 못했고, 에이랑에르를 코앞에 두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우회해 가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다. 한데 피오르가 막고 있는 게 문제다. 피오르의 물길은 길고 거대하다. 피오르 이쪽과 저쪽을 잇는 다리도 거의 없다. 피오르를 건너는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은 페리다. 그러니 페리가 끊기는 시간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낭패다. 늦게까지 페리가 운행하는 곳으로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이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좀 돌아간들 어떠랴.



- 1. 예이랑에르 피오르에서 바라본 풍경
- 2. 노르웨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산 시장의 모습.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다
- 3. 애틀랜틱 로드에서 있는 스토르세이순데트 다리에서 낚시를 하는 가족의 모습
- 4. 노르웨이 들판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설산이 있는 곳. 피어오르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노르웨이. 그곳에서는 이동 중에도 지루할 틈 없이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된다. 차를 세워 한참을 바라보다 또다시 길을 따라 나선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말이다.

물길 따라 풍경이 흐르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여정의 들머리는 크리스티안순이다. 4개 섬으로 연결된 예쁜 항구도시다. 공항 렌터카 창구에서 차를 받자마자 64번 도로로 올라탔다. 첫 목적지는 애틀랜틱 로드다. 노르웨이의 18개 국립관광도로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며, 노르웨이 10대 사이클링 루트 중 하나다. 비유하자면 '말의 심장을 가진 사내들이 미친 듯이 달려 보고 싶은 도로'다. 애틀랜틱 로드는 약 9km 길이다. 개구리 뿔뿔, 크고 작은 섬을 7개의 다리로 이으며 지난다. 이 길의 핵심은 스토르세이순데트 다리다. 전남 진도의 울돌목처럼 조류가 굉음을 내며 흘러가는 길목 위에 조성되었다. 우리나라 한 타이어 회사의 광고 영상에 등장하면서 꽤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리는 유려하면서도 강인한 형태다. 그 덕에 사방 어디서 보든 풍경의 주인이 된다. 애틀랜틱 로드에서 해안을 따라 50km 정도 달리면 몰데에 닿는다. 흔히 '장미의 도시'라 부르는 곳. 몰데에선 도시 뒤편의 바르덴 전망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해발 407m의 산자락에서 굽어보는 풍경이 더없이 빼어나다. 몰데 시가지와 피오르 해안, 그 너머로 설산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이를 '몰데 파노라마'라고 부른다. 눈에 들어오는 설산만 모두 222개라고 한다.

문제의 이튿날. 목적지는 예이랑에르다.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피오르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E39(유러피안 로드) 도로와 국도 등을 번갈아 타며 산간 마을들을 누볐다. 피오르와 국립공원 산자락에 깃든 마을들은 노르웨이 시골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 줬다. 거칠고 투박하나 정겹고 향기로웠다. 코스의 반환점은 롬. 1150년경 세워졌다는 롬 스타브 교회가 인상적인 소도시다. 교회는 단단한 노르웨이산 소나무로 지어졌다. 지붕엔 용머리 조각을 세웠다. 용은 예전 바이킹이 액막이로 삼았던 동물이다. 교회 건물에 기독교와 바이킹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셈이다.

롬을 떠나 구절양장 산길을 오르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초록빛은 가뭏없이 사라졌고, 오를수록 한겨울이다. 여기가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그간 잊고 있었던거다. 스멀스멀 내리던 안개비는 어느새 눈보라로 변했다. 게다가 예이랑에르로 넘어가는 산길은 폐쇄됐다. 콧노래가 순식간에 탄식으로 바뀌었다. 노르웨이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 왕국>의 배경이 된 것엔 역시 이유가 있었다.

서둘러 구글 맵으로 우회로를 검색하니 주변에서 페리가 닿는 가장 가까운 곳은 헬레실트였다. 대략 50분 거리. 마지막 페리 출항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았다. 페리에 오르기 위해 빠르게 차를 몰았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페리는 떠났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예이랑에르는 포기하고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느냐, 아니면 주민의 귀땀대로 늦게까지 페리가 운항한다는 스트란다 선착장을 향해 달려 보느냐. 일행의 선택은 만장일치, '달리자'였다. 그리고 도착한 스트란다 선착장. 이어 배를 한 번 더 갈아탄 뒤 마침내 예이랑에르에 닿았다. 30분이면 갈 곳을 산길, 터널, 물길을 야수처럼 달려 밤 10시 무렵에야 도착했다. 5시간 가까이 우회한 셈이다. 그나마 노르웨이의 백야가 아니었다면 어림없는 시도였지 싶다. 오후 9시를 넘긴 시간에도 길이 희히 보였으니 말이다.

피오르와 호수 그리고 아르누보 미학의 항구도시

예이랑에르 피오르는 험준하다. 해발 1,000m를 넘는 산들이 좁고 긴 협곡을 이루고 있다. 이 험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은 염소와 양 등을 키우며 살아왔다. 이들이 일궈 낸 절벽 목축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예이랑에르 피오르의 경관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전망대는 세 곳이다. 예이랑에르 마을 초입의 지그재그 도로 외르네스빙엔(영어로는 이글스 로드)과 마을 뒤 2km쯤 떨어진 곳의 플뤼달슈베트 전망대, 그리고 달스니바 전망대다. 이 가운데 달스니바 전망대는 워낙 눈이 많은 지역에 있어 여름철에만 공개된다. 험준한 예이랑에르 맞은편은 서정적인 노르피오르다. 작은 휴양 마을 로엔에서 계곡 상류를 향해 10여 분 차를 달리면 로바트네트 호수가 나온다. 유럽 최대 빙하인 브릭스달 빙하가

있는 요스테달 국립공원의 산자락 아래 형성된 자연호다. 만년설과 빙하를 머리에 인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쳤고, 질푸른 물은 장판처럼 잔잔했다. 일행 중 한 명은 이를 보고 “달력 사진 속 풍경으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산간 마을 헬레실트 인근에서 655번 도로를 타면 웅장한 노랑스달과 만난다. 자동차 여행의 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을 터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을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노랑스달은 빙하가 흘러간 흔적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거대한 협곡(달)이다. 이 길에서 유니온 호텔을 만난 건 뜻밖의 소득이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호텔은 꽤나 고풍스럽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 탐험가 로알 아문센,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 등이 이 호텔에서 묵어갔다고 한다. 방문마다 묵었던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올레순이다. 올레순은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항구도시다. 모두 7개의 섬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악슬라 산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굽어볼 수 있다. 레고 블록 같은 건물과 좁은 수로를 오가는 크고 작은 배, 그리고 넓게 펼쳐진 주변 섬들이 ‘북유럽스러운’ 풍경을 펼쳐 낸다.

올레순을 흔히 ‘아르누보의 도시’라 부르는 것엔 아픈 사연이 있다. 1904년 겨울 화마가 도시를 휩쓸었다. 당시 건물 대부분이 목재로 지은 것이라 피해가 더 컸다. 이때 아르누보 사조에 영향을 받은 젊은 건축가들이 도시 재건에 나섰다. 이들은 3년에 걸쳐 대리석과 벽돌로 건축물을 지었다. 그 덕에 올레순은 유럽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아르누보 건축 양식이 밀집된 도시로 남게 되었다.

올레순에서 3개의 해저터널과 1개의 연도교를 따라 엘링쇠위아 섬과 발데뢰위아 섬, 이스케 섬을 거쳐 고되위아 섬까지 갈 수 있다.

길이 4km 안팎의 해저터널은 내리막 구간과 굽잇길이 많아 운전 전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내리막의 경우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도 금방 시속 100km에 달할 만큼 경사가 급하다. 해저터널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섬들은 다양한 풍경을 선사한다. 고되위아 섬의 호그스타이넨 등대가 특히 인상적이다. 북대서양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겨 내고 있는 모습에서 강인함이 잔뜩 묻어난다. 등대 주변에 옛 고분 흔적과 두 개의 커다란 빗돌도 남아 있다.

마지막 밤. 숙소 맞은편의 빨간 등대가 반짝인다. 지어진 지 150년이 넘었다는 등대는 객실 1개짜리 실제 호텔이다. 한 호텔에서 특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 1층은 침실, 2층은 욕실인데 하루 묵는 데 55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그 붉은 등대 너머로 백야의 해가 저문다.



NORWAY MUST SEE



애틀랜틱 로드 - 스토르세이순데트 다리
애틀랜틱 로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다. 길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가 몇 곳 있지만 길에 있는 7개의 다리 중 가장 높고 경사진 굽잇길에 위치해 있다. 세찬 파도가 교각에 몰려와 부서지는 광경이 장관이다.



에이랑에르 - 롬 스타브 교회
에이랑에르는 192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명 작가 '크누트 함순'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전역에 몇 개 남지 않은 목조 교회로 바이킹 스타일과 기독교 스타일을 가미한 '우르네스 양식'의 교회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양식이다.



노랑스달 - 유니온 호텔
노르웨이에서 스파로 유명한 호텔. 산기슭에 위치한 이곳은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깊은 호텔이다. 오래된 호텔답게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호텔 1층에는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고되위아 섬 - 호그스타이넨 등대
노르웨이의 유명 등대 건축가인 '올레 가멜세테르'가 디자인했다. 가멜세테르는 노르웨이 해안 전역에 등대를 세운 사람이다. 등대는 섬에서 바다로 돌출된 곳 끝에 홀로 서 있다.



올레순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색색깔의 집이 오밀조밀 자리한 가운데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가 인상적이다

노르웨이의 맛

글. 이진아 사진. 장호

류니끄 류태환 오너셰프

2011년 가로수길에 레스토랑을 열었다. 일식과 프렌치 스타일을 살린 창작 요리를 선보인다. 도쿄 향토리 요리학교와 런던 르 코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배웠고, 고든램지를 비롯해 런던, 도쿄, 시드니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8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



전 세계 미식가 사이에서 식재료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을 중시하는 ‘노르딕 퀴진(북유럽 요리)’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르웨이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연어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자연산 어장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뿐만 아니라 철저한 쿼터제 준수와 감독으로 노르웨이 수산물은 안전하고 퀄리티가 높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강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생선을 보통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 훈제를 해 먹는다.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생선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다. 연어는 EPA, DHA와 오메가-3 지방산(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 연어는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자라 지방이 두텁고 기름이 많은 게 특징이다.



Norwegian roasted salmon with avocado Puree

아보카도 푸레를 곁들인 노르웨이 연어구이

시간: 35분 / 재료: 노르웨이산 연어 250g, 양송이버섯 300g, 물 2.5L, 각종 채소·아보카도·감귤·하몽 약간씩(4인분 기준)

소스 - 꽃게를 믹서에 간 뒤 버섯 등 각종 채소와 함께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졸인다. 그다음 쪽파 오일을 섞어 그린 에멀션을 완성한다. 요리 - 1. 연어를 중간 불에서 겉면은 80%, 뒷면은 20% 정도 부드럽게 익혀 소금으로 간을 한다. 2. 플레이트에 아보카도 푸레를 바른 다음 연어를 올리고 그린 에멀션 소스를 뿌린다. 3. 감귤과 하몽의 겉면을 토치를 이용해 불에 살짝 그을린 다음 연어와 함께 곁들여 낸다.

tip. 감귤류를 토치나 불에 살짝 그을리면 맛이 응축되고 향이 살아난다. 곁들여 먹을 하몽이 없을 땐 햄을 활용해 보자. 그린 에멀션 소스는 반 이상 줄여야 깊은 맛이 난다.



eXperimental Jaguar

실험적 재규어 XJ

글 김형준(〈모터 트렌드〉한국판 편집장)

미스터 재규어의 마지막 명작

세상은 재규어 브랜드 창업자인 윌리엄 라이온스 경(Sir. William Lyons)을 이렇게 불렀다. '미스터 재규어.' 비단 회사를 세운 장본인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아름다운 고성능 차에 대한 열망이 강한 인물이었고, 경영자임에도 차의 설계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세세하게 챙겼다. 그래서 직원들은 불편했는지 몰라도 그 덕분에 재규어는 1940~1960년대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다수의 명작을 쏟아 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등장한 XK 시리즈와 D 타입 스포츠카, E 타입 경주차와 마크 시리즈 세단 등이 대표적이다. 1968년 선보인 최초의 XJ(XJ6) 세단은 라이온스 경의 입김이 닿은 마지막 재규어 모델이었다. 그는 1972년 은퇴했지만 재규어는 오리지널 XJ의

스타일을 40여 년 동안 고수했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였다. 라이온스 경의 디자인이 더도 덜도 없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디자인을 할 수 없었거나. 그게 무엇이었던 XJ와 미스터 재규어가 재규어 브랜드의 유일무이한 제품과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세단이 아닌 세단, XJ

40여 년간 이어져 온 오리지널 XJ의 디자인은 네 개의 원형 헤드램프와 이 형태를 따라 길다란 보닛에 만들어진 네 가닥의 주름, 뒤로 갈수록 살포시 내려앉는 트렁크 형상, 그리고 완만하게 호(弧)를 그리며 그어진 차체 측면의 라인으로 대표된다. 단순히 우아하다거나 스포티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이 독창적인 디자인엔 비화가 있다. 시작은

세단이 아니라 일반 도로용 스포츠카였다는 것이다. 1950~1960년대 재규어는 자동차 경주에서의 큰 성공에 힘입어 스포츠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에 있었다. 날렵하고 우아한 데다 성능까지 뛰어난 재규어 스포츠카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이에 재규어 사는 미국 시장 투입을 고려한 4인승 스포츠카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 차체 앞뒤는 날렵하게 뻗고, 문도 두 개뿐이었다. 하지만 개발 중 상황이 급변했다. 그들에게 시급한 건 미국을 고려한 스포츠카보다 새로운 세단이었다. 재규어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대신 완성 직전이던 스포츠카를 활용하기로 했다. 뒷자리 승객을 위해 문 두 개를 추가했으며, 길쭉하던 보닛과 트렁크는 끝 단을 잘라 뭉툭해졌다. 전반적으로 고급 세단에 걸맞게 다듬었지만

스포츠카에서 비롯된 특징적인 요소까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활처럼 흰 측면 라인, 부드럽게 가라앉는 트렁크 등 40여 년 동안 XJ의 대표 스타일로 꼽힌 특징이 바로 그 잔재다.

1960~1970년도 당대 최고의 세단

강렬한 데뷔였다. 유럽 언론은 1968년 선보인 XJ6의 아름다운 스타일에 찬사를 보냈다. 시속 200km를 내달린 고성능뿐 아니라 어떤 차보다 안락한 승차감, 대형 세단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렵한 움직임에도 극찬이 이어졌다. 재규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의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 1969년엔 최고급 모델인 다임러 소버린(Daimler Sovereign)을 선보였고 이듬해엔 자동변속기 모델을 추가했다. 머잖아 뒷자리 공간을 확장한 롱 휠베이스

모델(차량의 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 간의 거리를 휠베이스라 한다)까지 더하며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렸다. 1972년엔 XJ12가 등장했다. XJ12는 V12 엔진(자동차 제조업체 람보르기니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엔진. 개량을 거듭해 현존하는 엔진 중 가장 정교한 엔진으로 여겨진다)을 얹은 세계 유일의 양산 4도어 세단이었다. 나아가 최고 속도 시속 225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4인승 자동차'라는 타이틀도 획득했다. 윌리엄 라이온스 경이 TV 광고에서 했던 말 그대로였다. 최초의 XJ6에서 다임러 그리고 XJ12에 이르기까지, 오리지널 XJ는 '역대 가장 뛰어난 재규어(The Finest Jaguar Ever)'로서 당대를 품미했다.



최초의 재규어 XJ 모델 XJ6, 1968.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한 대표에게 컬렉션은 곧 일상이자 여행이다. 그는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와 건축 오브제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떠날 채비를 한다. 시간의 깊이를 담은 수집품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의 여가식미(餘暇食美).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한 대표

홍대 앞의 명소 'aA 카페'와 'aA 디자인 뮤지엄'의 대표다. 한때 패션 디자이너로도 일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지오'를 오픈해 이탈리아 레스토랑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7년 문을 연 aA 디자인 뮤지엄은 전 세계 스타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곳. 건축 및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과 관계자라면 꼭 한 번은 들려야 할 국내 디자인 가구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오래된 물건은 존재만으로도 이야기를 담은 역사가 된다. 김명한은 인간의 창조적 욕망이 만들어 낸 사물과 그 안에 담긴 미적 아름다움을 수집하는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 컬렉터다. 그런 그가 2007년 자신의 수집품을 총망라해 문을 연 aA 디자인 뮤지엄은 어느덧 국내 디자인 가구의 성지가 되었다. 김 대표가 컬렉터의 길을 걷게 된 것은 30여 년 전 을지로 중고 가구 시장에서 디자이너 미하일 토넷의 '토넷 의자 No.14'를 손에 넣게 되면서부터다.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 판매상으로부터 험값에 의자를 사는데 성공했던 것.

이후 김 대표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aA 디자인 뮤지엄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꽃을 피운 거장들의 초창기 에디션부터 현재의 디자인 트렌드와 미래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특정한 성향이나 사조에 치우치지 않고 만나 볼 수 있다.

그는 디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아쉬움과 그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동병상련 그리고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의 여정과 기쁨을 이곳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그가 우리 삶 속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을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만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성'을 꼽는다.

“디자인에는 인간의 욕망과 시대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탐이 나도 가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자인에 담긴 작가 고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소비다”며 자신의 신념을 전했다.

최근 그는 아들 내외와 함께 제주도 한동리 해안도로 앞에 'jeju in aA'를 세우고, 아들네에 운영을 맡겼다고 했다. '천천히 가는 삶'을 지향하는 그에게 느린 여행자를 배려해 만든 게스트 하우스. 아직 어린 손녀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별빛을 보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기에 더 애착이 가는 곳이다.

그에게 가족은 안식처이자 살아가는 이유기도 하다. 수집을 위해 떠났던 출장길에 그릇을 집어 오는 것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그리워서이고, 와인을 사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떨어져 있었던 아내와 술 한 잔 기울이며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책장에 동화책이 자꾸 쌓여 가는 까닭은 눈앞에 손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인지도 모르겠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선의를 택하고, 때로는 놓을 줄 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는 그의 하루는 오늘날도 천천히 흐른다.



餘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살피다
'그릇 수집'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저의 가장 오랜 취미입니다. 마음을 끄는 물건을 수집하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추측하고 의미를 부여해 감정이입하기를 좋아하지요. 특히 그릇에 관심이 많아 이야기가 담긴 오브제를 모으곤 합니다. 나무로 된 그릇이나 핸드메이드 접시를 좋아하는데, 숙련된 장인들의 시간과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취미로는 '문(Door) 모으기'가 있습니다. 유럽은 오랜 세월 집을 보존하고 허물지 않으니 만든 지 수백 년은 족히 더 된 대문이 많아 수집하는 즐거움이 큼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문이 많은데 한옥과 함께 사라져 아쉬움이 큼니다.



暇 공간적 사유와 사유적 공간
'aA 디자인 뮤지엄 집무실'

뮤지엄 안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무실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제가 이곳에서 오롯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4년 전 입양한 고양이 설, 다다와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데, 이곳에서 사유하며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한 번 안 마주치던 녀석들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지내다 보니, 차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군요.(웃음) 어릴 적에 친가와 외가가 모두 안동 낙동강 인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환경이 주는 '정서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과 디자인이 있는 공간 속에서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자 행복입니다.



食 아내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와인과 사케'

아내와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술을 잘 마시진 못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르고뉴 와인'과 '차가운 사케'를 즐겨 마십니다. 부르고뉴는 영어로는 버건디(Burgundy), 독일어로는 부르군투(Burgund)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 중 하나이며 흙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지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양념이 적은 음식과 함께 맛이 깔끔한 사케를 주로 마시는데, 보통 4잔 정도 먹으면 한 시간쯤 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웃음) 사케가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 도수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반주로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술이에요. 소박한 반찬을 곁들인 오니기리 그리고 오차즈케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원체 적당히 쓸쓸하게 있는 걸 좋아해 혼자 사케를 즐길 때도 많습니다.



美 내 안의 순수와 마주하다
'동화책'

어린 손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개들을 한 번씩 다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꼬마지요. 원래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손녀가 생긴 후로 동화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손녀와 함께 동화책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누군지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웃음) 풍부한 색감의 동화책을 보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저 자신이 좀 더 간결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실제 프랑스나 덴마크에서는 여섯 살 이전까지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림책 위주로 보게 해 상상력을 키우도록 돕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순 없지만, 내년 봄엔 손녀와 함께 꼭 이 동화책들을 보고 싶네요.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무기

본드 워치

글 이진아 자료 제공 오메가 코리아

영국 정보부의 스파이 제임스 본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무기'다. 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일명 본드 워치라 부르는 '오메가' 시계다. 제임스 본드의 파트너로서 20년 가까이 '007 시리즈'의 진화를 이끈 영화 속 오메가의 역사를 살펴본다.

오메가, 007과 함께 성장하다

007 시리즈 <골든 아이(1995년)>의 의상 디자이너 린디 헤밍에게 본드를 위한 새 시계를 선정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그녀는 영국 해군이 애용하는 블루 다이얼의 오메가를 선택하며, "제임스 본드라면 당연히 블루 다이얼이 탑재된 시마스터를 착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작을 포함해 제임스 본드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제임스 본드와 오메가의 파트너십 역사는 시작되었다. 실제 오메가는 1969년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다녀온 최초의 시계'이자, 총 26번이나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기록을 공식 계측한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시계는 영화 속에서 레이저 기술로 강철 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된 원격 기폭 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을 손쉽게 폭파한다. 물론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제임스 본드의 손목에 채워진 오메가 하나면 충분하다. 현재까지 총 24편이 제작된 007 시리즈는 최장수 영화답게 다양한 시계가 본드의 손목을 거쳐 갔다. 그중에서도 오메가는 20년째 제임스 본드와 파트너를 이루며 찌릿한



Bond Watches Worn In The Movie



1995 - 2002 GOLDENEYE - DIE ANOTHER DAY



2006 CASINO ROYALE



2008 QUANTUM OF SOLACE



2012 SKYFALL



2015 SPECTRE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시리즈에 따른 모델의 변화는 있었다. <골든 아이>를 기점으로 <네버 다이(1997년)>, <어너더 데이(2002년)> 등의 작품에서는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M'이 등장했다. <퀀텀 오브 솔러스(2008년)>의 경우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이 본드의 시계가 되었다. 시마스터는 전문 다이버를 위해 탄생한 시계다. 역회전 방지 베줄에 헬륨 방출 밸브 등을 장착했으며, 시침과 분침은 슈퍼루미노바로 코팅해 물속에서도 푸른빛을 발하므로 경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007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영화 속에서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뽐낸 오메가는 2015년 개봉작 <스펙터>에서 결정판을 선보인다. '시마스터 300 스펙터 리미티드 에디션'이 바로 그것. 오메가가

제임스 본드와 영화를 기념하고자 만든 이 시계는 오직 7007개만 한정해 시리얼 넘버를 부여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 그리고 인그레이빙한 'SPECTRE'라는 글자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오메가는 <스펙터>를 기념해 또 하나의 한정판을 추가했다. 바로 '시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이다. 본드 가문의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시계는 제임스 본드를 상징하는 총신(Gun Barrel) 모양의 커팅이 특징이다.

한편 <스펙터>에서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다니엘 크레이그는 오메가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오메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누군가 저더러 '당신이 제임스 본드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면 정말 멋지겠지.

하지만 내가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무성해졌고, 그는 일종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중고 매장에 들러 오메가 시계를 구입했다. 캐릭터와의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가 구입한 모델은 1968년 제작한 오메가 '시마스터 300'으로 공교롭게도 이번엔 그가 <스펙터>에서 착용한 시마스터 300의 과거 버전이다. 그리고 그 소문이 시작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는 다시 한 번 영화 속에서 오메가 시마스터 300을 착용한다. 20여 년간 이어진 오메가와 제임스 본드의 강력한 유대, 그 끈끈한 호흡은 24번째 007시리즈 <스펙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HINT! 로마 네로 황제가 금과 맞바꿀 만큼 귀하게 여긴 것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고 업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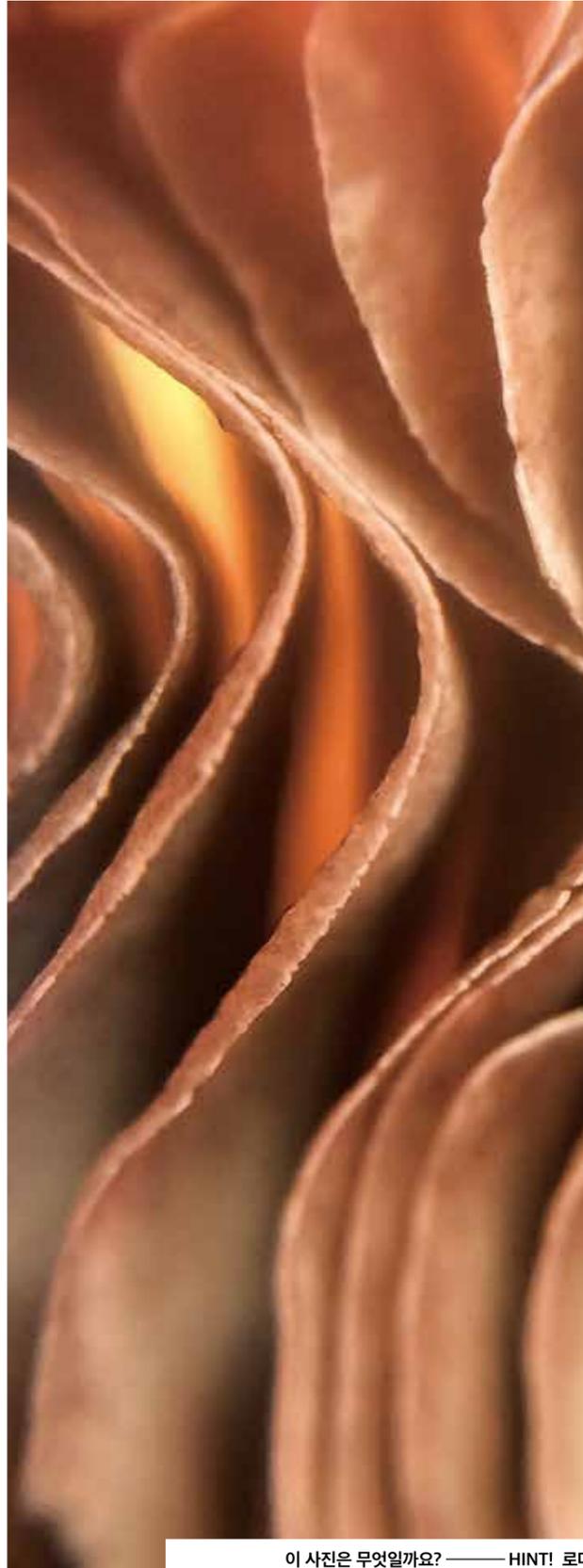
Aju + Style

아주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많은 활동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故) 문태식 명예회장을 기리는 1주기 추모식 행사가 있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셨던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꿈꾸는 작은 도서관 개관 및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수업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지요.

“아주는 출중하고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성실과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놓은 결과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명예회장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는 개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인이 만들어 가는 아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HINT! 로마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래는 꿈꾸는 자,
도전자의 것!
자기 철학과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재보다
우위에 서는 길입니다.”

“개척자 정신은
새로움에 대한 욕구와
변화에 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아주 창업주
정삼문래식

故 청남 문태식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올곧은 인생, 숭고한 정신을 아로새기다

글 김희선 사진 제공 아주 일러스트.임성구



2014년 타계한 문태식 아주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식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청남빌딩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규영 아주 회장을 비롯해 유가족 30여 명과 아주, 신아주, SJ 가족의 임직원 그리고 관계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인을 기리는 목적으로 시작한 추모식은 추모 연주와 추모 영상 상영, 약력 보고, 추모사 낭독, 고인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범요 의식,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중 추모 연주와 추모 영상 상영은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즐겨 들던 '신라의 달밤'이 잔잔하게 울려 퍼진 데 이어 고(故) 문태식 명예회장의 옛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이 끝난 뒤 아주산업 이경언 기획본부장과 박재용 파일사업부문장은 각각 고인의 약력과 추모사를 낭독했다. 약력 보고를 통해 되돌아본 문태식 명예회장의

생애는 열정과 도전으로 점철된 인생 그 자체였다.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선 '배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문태식 명예회장은 학구열을 불태워 대학까지 진학했다(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사학과). 1950년대 시멘트 사업을 시작해 콘크리트 전신주 공장을 설립하고 1980년 레미콘 사업을 본격화한 모습에선 천생 기업가다운 해안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아주가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문태식 명예회장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앞서 개척한다'는 도전 정신에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였다. 박재용 파일사업부문장은 추모사를 통해 문태식 명예회장의 개척자 정신,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의 업적을 되짚었다. 그는 "문태식 명예회장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이 되었지만, 살아생전의 활력 넘치던 모습과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서

유가족 대표 인사를 하고 있는 아주 문규영 회장



신문과 바둑, 담배, 재떨이, 주판 등 문태식 명예회장의 유품이 전시됐다.

“명예회장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주 임직원 모두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모객들이 헌화를 마친 뒤에는 장남인 문규영 회장이 유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사랑으로 기업을 키우고 구성원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문태식 명예회장의 고귀한 뜻에 모두가 함께해줄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과 임직원들은 현장에 전시해 놓은 유품과 고인의 행적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며 문태식 명예회장의 열정적인 생애와 소박한 삶을 추억했다. 고인의 친필 메모와 안경 등을 전시한 공간은 고인의 책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해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부인 백용기 여사와 유족은 고인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듯 유품과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로 선영 참배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는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1주기 추모식에 맞춰 제작된 문태식 명예회장의 흉상은 2015년 4월 29일 제작 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7개월 동안의 작업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흉상 제작은 정대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흉상에 새겨진 명판 글씨는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강병인 대표가 참여했다. 제작한 흉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개척자인 문태식 명예회장의 숭고한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초동 청남빌딩, 상봉동 신아주, 문정동 SJ가족 사옥 로비에 각각 놓이게 된다.

아주 좋은 세상을 꿈꾸던 기부 영웅

문태식 명예회장은 살아생전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에 힘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인은

숭고한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문태식 명예회장의 흉상





1. 현악 앙상블 연주팀 인티모 파르렛의 추모 연주
2. 추모 현화를 하는 아주 임직원
3. 추모 사진전을 관람하는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
4. 문태식 명예회장의 묘소에서 합동 참배 하는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

2013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48명의 기부 영웅들'에 이름을 올렸고, '2005 자랑스러운 동국인상'과 '2002 동국청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문태식 명예회장은 지난 2013년 토지 14필지 26만 3,799㎡(임야 1필지 26만 1,494㎡, 도로 13필지 2,305㎡)의 사재를 서울 중랑구에 기부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1960년대에 중랑구에서 사업을 시작해 아주가 현재의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고인이 기부한 토지는 시가로 400억 원이 넘는다. 개인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한 사례는 많지만 회사 창업주가 현금이 아닌 수백억 원대의 땅을 기부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중랑구는 문태식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일부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부 토지 중 일부가 현재 건설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돼 받은 약 76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비 또한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이 시대의 큰 어른 문태식 명예회장. 그는 남이 가지 않으려던 힘든 길을 솔선해 걸었던 개척자이자, 국가와 사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먼저 지녔던 진정한 사업가였다.

문태식 명예회장은 평소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중랑구에 땅을 기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기업가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이행하면서 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가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세상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중랑구청이 구내 '빅뉴스'로 지역매체를 통해 알린 후부터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문태식 명예회장은 아주 임직원은 물론 기업가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따라서 아주 계열사들은 명예회장의 유지(遺旨)를 받들어 장학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문태식 명예회장은 자신에겐 누구보다 엄격하고 원리원칙에 충실했다. 그와 동시에 인간적인 정을 매우 중요시했다. 자식들에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 사업가로서의 열정이 곧 가족과 직원 그리고 사회를 향한 온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온정 어린 마음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문태식 명예회장. 고인의 따뜻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문태식 명예회장과 아주의 에피소드

농기구 자루 사업으로 사업가적 자질을 키우다 1928년 문태식 명예회장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념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청년 시절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농기구 자루 사업으로 사업가적 자질을 키워, 훗날 국가 산업 재건에 이바지할 다양한 사업을 극대화한 참 기업인이 된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미래상을 담보한 아주와 그의 개척자 정신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부국을 꿈꾸던 청년 시절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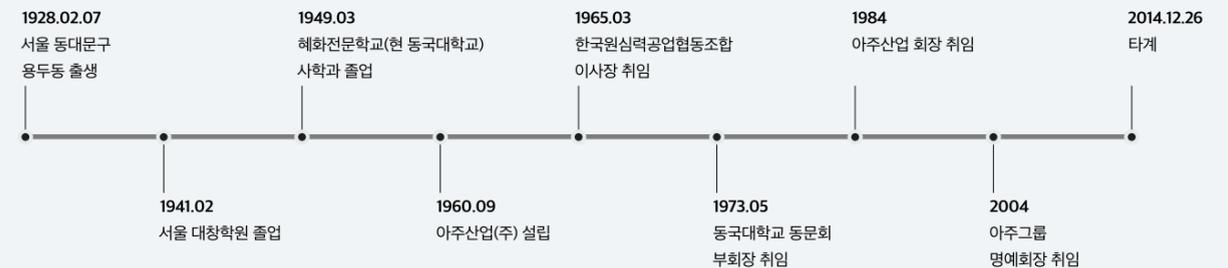


목탄차 물류 사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다 1949년 문태식 명예회장은 가진 돈을 전부 모아 목탄차를 구매했다. 당시 목탄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상당한 기술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았다. 하지만 트럭에 대한 이렇다 할 지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사기를 당했고 가세마저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문태식 명예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돈을 모아 시멘트 수입 대리점을 시작했다. 이 대리점이 바로 훗날 아주산업 창업의 모태가 된 '아주시멘트산업상사'다.

짜장면으로 명예회장과 의 추억을 떠올리다 추모식 당일, 임직원들은 명예회장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삶을 다시 한 번 추모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생도처유청산"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움은 있으나, 노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면 청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명예회장의 사명과 염원을 더욱 깊게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직원 사랑과 사업보국을 몸소 실천해 온 문태식 명예회장의 시대정신이아말로 아주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문태식 명예회장의 생애





손에서 손으로
하나씩 연탄을 나르며

노동요를 부르듯
신나는 콧노래도
흘러나오고,

동료들과의 즐거운
이야기꽃도 사이사이
피어난다.



제11회 사랑의 부싷돌

온기를 쌓다 행복이 배가되다

글. 이은아 사진. 장호 일러스트. 민지홍



겨울비가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주 임직원을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에서 만났다. 훈훈한 온기의 연탄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 텅 빈 창고에는 아주 임직원이 손에서 손으로 전한 연탄이 따뜻함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이웃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을 건네는 삶을 실천한 사랑의 부싷돌 현장을 소개한다.

11년을 이어 온 나눔의 저력

한적하던 방배동 전원마을에 시끌벅적한 활기가 감돈다. 과란 조끼에 빨간 목장갑, 검은색 앞치마와 팔토시까지 착용한 아주 임직원의 부산한 움직임 때문이다.

고급 주택이 즐비한 방배동 전원마을이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닐하우스촌이라 불리는 외외의 지역이 나온다.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에 담요나 땅 등을 씌워서 만든 집 80여 채가 웅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껴난 이곳을 아주산업,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네트웍스, 아주호텔엔리조트 등 아주 전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찾았다.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다.

일 년에 한 번, 초겨울에 진행되는 '사랑의 부싷돌' 연탄봉사활동은 아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사업장이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연탄이나 난방용 기름을 보낸다. 사랑의 부싷돌은 아주가 11년째 이어 온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활동이기도 하다. 11년이라는 숫자는 아주의 진정성을 대변한다.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연탄봉사를 쉬지 않고 매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의 경영 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꾸준함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탄 배달에 참여한 베테랑 자원봉사자라도 '제11회 사랑의 부싷돌' 행사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애초에 우천으로 한 번 연기되었는데, 또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굶은 날씨는 봉사 환경도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연탄에 치명타를 날린다.

"연탄은 비에 맞으면 물러집니다. 망가진 연탄은 반납을 해야 하죠. 온몸으로 연탄을 보호해 주세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옮겨 주시고요. 지난번에는 20명의 아주 특공대가 우천 중에도 3,000장을 무사히 날랐습니다. 오늘도 아주의 저력을 보여 주세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원기준 사무총장의 격려에 아주 임직원은 각오를 다진다. 연탄 배달을 위해 청바지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한 아주 문규영 회장도 임직원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며 힘을 실었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 따뜻함을 전하는 연료입니다. 비가 오고 힘든 상황이지만 연탄과 같이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봉사의 마음으로 모두 이 자리에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써 주십시오" 문규영 회장의 인사말에 권기현 마을회장도 잊지 않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을이 되면 아주에서 언제 오시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춥지 않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연탄 한 장의 온기가 절실한 전원마을 주민들에게 아주의 작은 나눔은 큰 힘이 된다. 뽕뽕 언 경제 사정으로 기부와 봉사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꾸준한 실천으로 나눔에 앞장서는 아주는 전원마을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업으로 각인되어 있다.



1 2 3 4

- 1. 문규영 회장으로부터 개인기부 증서를 수여받는 임직원들
- 2. 사랑의 부싷돌 행사에 참여한 아주 임직원
- 3. 무거운 연탄을 옮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주호텔앤리조트 임직원
- 4. 좁은 골목골목 사이로 연탄을 나르는 아주캐피탈 임직원

연탄 봉사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아마 저 혼자였으면 업두도 못 냈을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이었어요.

연탄을 받으신 분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2015년은 저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입사 10년이 되었고, 그룹 55주년 행사 때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렸고, 딸도 대학에 합격했죠. 이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기부는 이번이 처음인데,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조성주 매니저



아주캐피탈 최영철 심사역

제11회 사랑의 부싷돌 행사에서는 이 특별함을 더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배달 봉사와 아울러 연탄 기부를 결심한 직원에게 기부 증서를 전달하는 순서가 그것. 입사 10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주캐피탈 최영철 심사역은 연탄 1,660장을, 이웃과 소소한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아주호텔앤리조트 조성주 매니저는 연탄 100장을 개인적으로 기부했다. 사랑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다. 이들의 숭선수범하는 자세에 문규영 회장도 2016년도에는 개인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직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연탄이라 쓰고 희망이라 읽다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돌입하려는 찰나 어느새 주룩주룩 내리던 빗줄기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연탄이 비에 젖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염려하던 아주 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듯 비 그치는 타이밍이 절묘했다. 하늘의 도움을 등에 업은 아주봉사단의 연탄 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원마을은 연탄 배달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틈을 두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다. 지게나 수레 같은 도구 대신 손으로 직접 다 날라야 한다. 40여 명의 직원이 전원마을 가장자리에 자리한 집까지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문규영 회장도 릴레이의 선두에 섰다. '하나, 둘, 셋' 전달하는 연탄 개수를 세는 구령 소리에 맞춰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손에서 손으로 하나씩 연탄을 나르며 서로 호흡을 맞추다 보니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동작에서도 리듬이 느껴진다. 노동요를 부르듯 신나는 콧노래도 흘러나오고, 동료들과의 즐거운 이야기꽃도 사이사이

피어난다. 뒤통이 그리 즐거운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높이 14cm, 지름 15cm, 무게 3.6kg의 연탄은 걸보기와 달리 무게가 만만찮다. 여자들은 한 번에 두 장, 남자들은 최대 네 장까지 나를 수 있다. 배달이 계속될수록 팔과 다리는 아프고 얼굴에는 까만 그을음이 묻어난다. 그러나 이 연탄이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겨울나기를 위한 절실함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 장이라도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힘을 내서 옮긴다. 주민들의 집에 연탄이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인다. 혹한이 닥쳐도 이 집에서 온기가 피어오를 걸 생각하니 아주 임직원의 마음에도 행복이 차곡차곡 쌓인다.

구슬땀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임직원이 그저 고마운 전원마을 주민들은 따뜻한 어묵탕을 간식으로 내왔다. 여기에 나인프라임푸드에서 준비한 보쌈까지 곁들이니 봉사 현장은 금세 잔칫집 분위기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아. 힘든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 애써 줘서 고마워”라며 봉사자들의 등을 두드리는 할아버님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진다. 봉사자들은 직접 끓인 어묵탕을 그릇이 넘치도록 담아 주는 어르신들의 인심 덕분에 퐁퐁 열었던 손과 발은 물론 속까지 풀리는 것 같다.

아주는 지난 11월 23일과 12월 2일 두 번에 걸쳐 방배동 전원마을에 연탄 6,000장을 배달했고, 나인프라임푸드가 기부한 라면 30박스도 전달했다. 사랑의 부싷돌은 전국 지방사업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2015년 전국 290세대에 6만 6,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온기를 퍼트리는 연탄처럼 아주의 사랑의 부싷돌 봉사활동도 훈훈한 희망의 불씨를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숫자로 보는 아주 사랑의 부싷돌 11년의 역사



8,848m X 12

아주가 나눈 연탄을 쌓으면 에베레스트 12배 높이



5t X 554

아주가 나눈 연탄의 무게는 5t 트럭 554대



약 290세대

아주가 연탄을 지원한 세대수

AJU NEWS

Volume 43 아주 뉴스

‘아주 좋은 날’, 2016 NEW YEAR

www.aju.co.kr

【아주】

2016 丙申年 ‘혁신하는 아주, 성장하는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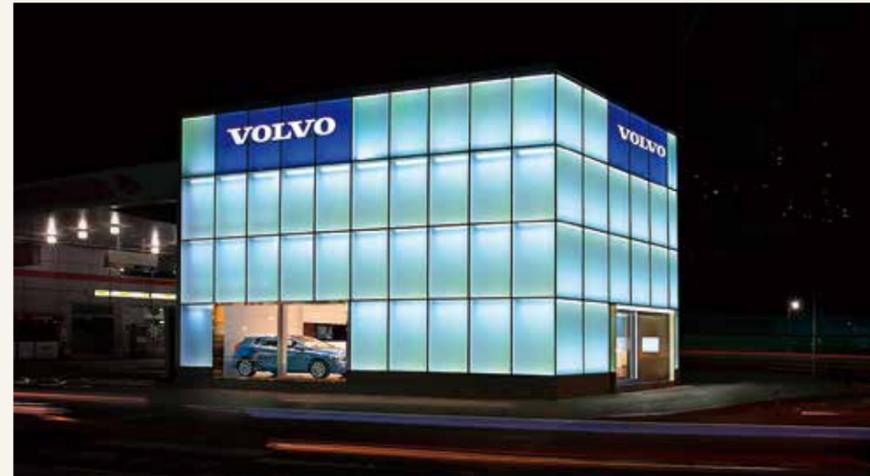
아주는 새해 포부를 다짐하는 시무식 행사를 1월 4일 청남빌딩 17층 대회의실에서 문규영 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무식 진행을 맡은 건자재 PHC영업팀 허정현 매니저의 힘찬 선창으로 새해 복을 기원하는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이후 ‘2015년 Review’ 동영상 상을 시청하며 본격적인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동영상에는 각 사에서 진행한 신년 워크숍에서부터 2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아주의 MOU 체결식, 8월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거쳐 12월 고(故) 문태식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까지 뜨겁고 노력으

로 결실을 일궈 낸 아주인들의 활약상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다시 한 번 열정적인 한 해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5년 Review’ 동영상 시청 후에는 아주의 2015년을 열정과 성장의 해로 이끈 사업장과 인재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최고의 성과를 이룬 아주산업 아산사업소, 아주캐피탈 인천지점이 선정되었으며, 핵심가치 실천리더로는 아주산업 PHC영업팀 박종권 매니저, 아주산업 병점사업소 고객만족팀 정제현 매니저, 아주캐피탈 신차승용팀 박영화 매니저, 아주캐피탈 대전커머셜금융팀 장대현 매니저,

아주저축은행 기업금융팀 이중석 팀장, 아주네트웍스 한남지점 신주환 영업팀장이 선정되었다. 시상이 끝나고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문규영 회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그 어느 해보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인정신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아메바 혁신 방법은 우리의 원가 절감과 창의력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며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의 DNA를 깊이 각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자동차 일산 및 목동 전시장 신규 운영



아주는 2015년 2월 1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볼보자동차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며 새로운 딜러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볼보 자동차 판매를 위해 4월 아주오토리움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일산과 목동에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 볼보자동차 일산 전시장은 총면적 2,458.8㎡(약 750평)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해 고객들이 차량과 부품 구매는 물론 서비스 이용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

다. 일산 전시장의 1층은 최대 7대까지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2층은 고객 라운지와 사무실, 3층은 20대 이상 동시 주차가 가능한 옥외 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지하 1층에 마련한 서비스센터는 볼보의 개인 전담 서비스 콘셉트인 ‘VPS(Volvo Personal Service)’를 적용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차량 수리 및 정비받을 수 있다. ‘카 스튜디오(Car Studio)’를 적용한 점도 이색적이다. 고객들이 차량 컬러를 비교해 직접 시트에 적용된 천연가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전시

장 내에 컬렉션 쇼케이스를 설치해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 체험도 가능하다.

반면 지상 2층에 연면적 786.8㎡(약 240평)의 규모를 갖춘 볼보자동차 목동 전시장은 오픈테라스와 커피 바를 설치한 고객 라운지를 운영해 고객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규 오픈한 두 전시장 모두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외관과 북유럽의 안락하면서도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자랑한다. 아주오토리움은 전시장 신규 오픈에 맞춰 특별한 고객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일산 및 목동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꾸민 ‘V40’ 차량을 운행한 뒤, 해당 차량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준 모든 고객에게 핫팩을 증정한 것. 또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일산과 목동 전시장에서 계약 후 출고한 모든 고객에게 하만카돈의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나 일렉트로룩스의 무선청소기를 증정해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주오토리움은 2016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안양 지역에도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일산 전시장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1(풍동) 전화: 031-906-6789

목동 전시장 |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7길 1(신정동) 전화: 02-2061-6789

【아주】

2015 신규입사자 교육 실시

‘2015 신규입사자 교육’을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었다. 상반기 신규 입사자 6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아주의 기업 문화를 내재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했다. 이에 전반적인 경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소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전문 강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 탁용원 팀장이 강연에서 아주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소개했다. 더불어 아주의 창업 정신인 ‘개척자 정신’부터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궁정과 기쁨’의 아주 정신 등 아주의 근간이 되는 기업 문화와 핵심 가치에 대해 설명했



다. 이어 문규영 회장이 신규 입사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경영 철학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온 아주의 역사를 소개하며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성장도 멈추는 일이다.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박

탈당하는 것이다”라며 아주만의 혁신 DNA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규영 회장과 만난 후 신규 입사자들은 협업과 소통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골드버그’ 강의, 기본적인 재무·회계 지식 함양을 위한 ‘경영회계 시뮬레이션’ 등의 과정을 소화하며 2박 3일간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아주캐피탈]

‘도서관을 부탁해’ 도서 전달식 개최

아주캐피탈은 12월 16일 본사 로비에서 ‘도서관을 부탁해’ 도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2,000권의 도서는 아주캐피탈 임직원과 가족들이 기부한 것이다. 직원들은 12월 1일부터 2주간 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도서관 책장에 가져온 책을 채워 넣었다. 전국 영업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랑과 택배 등을 통해 책을 보내왔고, 이렇게 모은 도서는 아주복지재단에서 문을 연 ‘꿈꾸는 작은 도서관’ 1, 2호점에 전달했다.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지역 사회복지기관 안의 소규모 공간을 책

방 형태의 학습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서울 강남구 비전 학교 아동센터와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한다. 행사를 기획한 아주캐피탈 김동규 홍보마케팅 팀장은 ‘도서관을 부탁해’는 “나에게 아주 소소한 무언가가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앞으로도 쉽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도와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부 활동에는 아주산업, 아주저축은행, 아주큐에스 등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아주 직원도 함께했다.



[아주캐피탈]

16개국 83명 다문화가정 아이를 위한 행복한 나눔



“용돈관리 게임 너무 재미있어요. 앞으로 매일 용돈기입장 써볼래요” 아주캐피탈은 16개국에서 온 83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인 ‘지구촌 학교’ 학생들을 위해 12월 2일 금융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재능기부를 신청한 아주캐피탈 12명의 임직원이 1일 셰프 및 선생님이 나서 학생들의 식사와 수업을 도왔다. 학생들이 일찍이 금융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업은 학년별 수준에 맞게 돈과 화폐의 개념 및 용돈의 활용법 등에 관해 다루었다. 임직원은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카드게임 등을 응용한 수업을 구성했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금융취약 계층을 위해 진행 중인 ‘아주 든든한 금융교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교육 수혜자 계층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

다”라고 밝혔다.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36차례 진행해 총 1,400여 명이 참여했다. 아주캐피탈은 2012년부터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과 함께 무료 배식 봉사·사랑의 김장 나눔 등 어려운 환경의 이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돌봄 활동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아주저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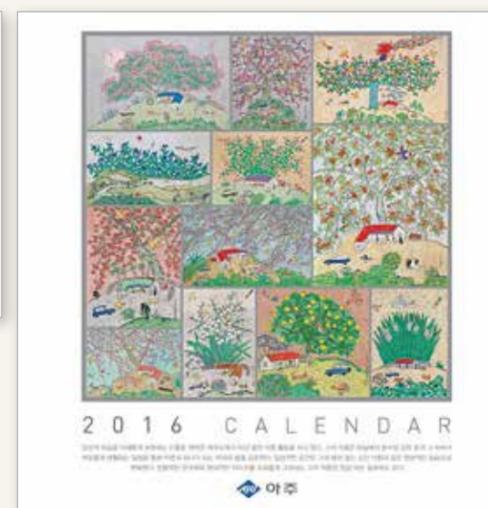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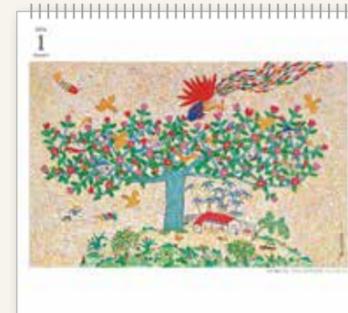
열린 대화,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지난 12월 4일 문규영 회장은 아늑한 실내 인테리어로 객장을 재단장한 아주저축은행 청주지점을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 최고경영자 소통 프로그램 ‘같이[가치] 나누는 행복한 대화’를 가졌다. 직원들과 사무공간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눌수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간담회에 앞서 전영호 실장이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청주 지역의 특징을 소개하고, 뒤이어 영업부 실적과 2016년 중점 추

진 계획 및 현황과 주요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에 문규영 회장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만 따지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 행복은 주변 동료 모두가 같이 느끼는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행복한

일터’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생각과 말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문규영 회장은 직원들을 위해 2015년 감명 깊게 읽은 도서에 격려 메시지를 적어 선물로 건네자 직원들은 직접 만든 목도리로 화답해 간담회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아주]

2016년 아주 캘린더

2016년도 아주캘린더에는 이왈중 화백의 작품 <제주생활의 중도> 12점이 실렸다. 이왈중 화백은 제주도에서 2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며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해 왔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을 강조한다. 아주는 캘린더에 이왈중 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담으며 삶의 여유와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기원했다. 그동안 아주는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걸스타인을 비롯해 구분창, 이숙자, 안윤모 작가 등 매년 다양한 작가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삶의 다이내믹을 담으려고 한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창립 5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타 기업들의 기념식과 달리 직원분들의 편안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념식인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아주의 100년이 더 기대되는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춘성 님·AJU SWEET MOMENT



지난 호 '춘천이몽' 기사 속 물안개 사진은 기가 막히더군요. 얼른 봄이 되어

코끝을 스치는 청량하고 맑은 내음이 가득한 춘천으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지성연 님·TASTE OF HUMANITIES



'400년의 시간을 느끼며 산다는 것'의 김원길 총장님 가족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는 가족 같았어요. 반면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행복을 때로는 고되게 지키고 있는 중부의 인생도 헤아려집니다. 이연희 님·JOY OF LIFE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배운다' 기사가 좋았습니다. 여섯 살 아들 녀석과

함께 기사를 읽으며 사진이 개미굴 놀이터라고 알려 줬더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무한한 상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문희 님·FUN OF SHARING



노년이 되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귀농한 사람이나 고택 등에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눈여겨봅니다. 『아주 좋은 날』에서 리모델링한

옛집이나 목재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다뤄주시면 아이디어도 얻고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건우 님·JOY OF LIFE



아주는 제게 듬직하고 믿음직한 친구 같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아주 좋은 날'을 만들고

있는 아주.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링 도안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웠답니다. 서정숙 님·SPECIAL PAGE

더 나은 '아주 좋은 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차금석 님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진가경 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지성연 님 전남 여수시 여서로, 이연희 님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김광희 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 권) 서정숙 님 경기 성남시 수정로, 이춘성 님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이형철 님 경기 광명시 기아로, 김문희 님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강건우 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아주산업	아주아스콘	아주베트남	아주컴보디아	브이샵	아주지오텍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모터스	아주수원정비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호텔앤리조트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글로벌	아주큐엠에스	아주복지재단	



The Secret of getting ahead is getting started.

성공의 비결은 시작에 있다. -Mark Twain 마크 트웨인

첫 조각부터 글 정용철

시작의 비결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첫 조각부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복잡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조각들이 전체를 이루며, 그 나름대로의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그것을 전체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우선 복잡한 일을 작게 나눈 다음 그 조각들이 전체에 들어갈 순서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작아지고 간단해져 퍼즐 맞추듯 재미있습니다.

시작을 작고 가볍게 하십시오. 삶이라는 그림의 즐거운 퍼즐 맞추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매발톱
그림 송훈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유니오르
수제인 독립 부담
발행 유효 기간
2014.5.4 - 2016.5.3
서울 서초구세곡 송인
제40797호

아주 작은 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6626

「아주 좋은 날」 vol.43을 읽고 난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IDEA 페이지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아주 좋은 날」을 제작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주 사외보 『아주 좋은 날』 고객정보수집동의 약관

‘아주그룹’(http://www.aju.co.kr 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수집목적

성명, 주소 : 정기구독 배송을 위한 배송지의 확보

전화번호 : 경품 배송 시 연락처의 확보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보존 근거 : 회사 내부 방침

보존 기간 : 사용자 요구 시 즉시 파기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사외보 배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이DM	발행물 배송	성명, 주소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5. 『아주 좋은 날』 사외보 신청 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주그룹 홈페이지(www.aju.co.kr)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수집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아주 좋은 날」 배송이 어렵습니다. 구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확인 후, 동의 항목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